



“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Siba 2005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모든 제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 한국의 최신 제과제빵 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한한 해외 참관단들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국제 전시회를 선보여야 합니다. ”

“제과인들이 출품한 작품 수가 많을수록 Siba의 성공을 점칠 수 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 주최로 2년마다 개최하는 2005 SIBA(Seoul International Bakery Fair, 이하 Siba)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Siba는 지난 2003년 국제전시회 인증기관인 UIF(Union of International Fairs)로부터 공인받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베이커리 국제 전시회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제과인들의 기술을 세계화시키는 데에도 Siba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3년에 시작해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전국의 제과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공들여 만든 작품 약 1천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고, 프랑스 리옹 월드페이스트리컵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월드페이스트리컵챔피언십 한국 대표 선발전이 개최되어 그동안 제과 기술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또 이번 대회부터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표창과 프랑스 연수 기회가 부상으로 주는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Siba 2005 홍보를 위해 일본과 대만,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Siba 2005 해외 참관단 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20년 동안 단절된 대만과 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록적 역할을 해서 100명의 참관단이 한국을 방문해 Siba 2005를 참관키로 했으며, 중국에서도 Siba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명단(참관고찰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Siba 2005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모든 제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 한국의 최신 제과제빵 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한한 해외 참관단들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국제 전시회를 선보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본 대회를 가장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제과인들의 큰 관심 속에 높은 참여율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열린다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의 장(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 준비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신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워진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에 참여하십시오. 대회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자신을 느끼실 것입니다. 수상에 대한 부담은 버리고 도전 정신과 꿈과 밀바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협회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불황으로 힘든 날을 보내는 회원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한숨만 내신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경영 부문 베스트셀러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명언인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찬스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과인이라면 누구나 Siba 2005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대한제과협회장 김 영 모